

2026년 3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1. 회의개최

구분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6.3.31.	대전MBC 4층 회의실 (대면회의)	9/10	5	2	16	○		

○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김욱 위원장, 백강희 부위원장, 김미화 위원, 이섬교 위원, 정성일 위원, 문선혜 위원, 박은숙 위원, 이현욱 위원, 최승인 위원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진종재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이재우 경영국장, 김지훈 보도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 경영진 외 : 김학철 기획제작부장, 이재근 실무담당(국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채널 구성·운영	방송프로그램					자재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	2	6	-	2	10	-	10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 참고	반론	합계
건수	10	-	-	10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보도	<상당기관 등 안내 자막 보도> 교제 폭력 뉴스 등을 보도할 때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상당 받을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한 안내 자막을 같이 보도해 주면 좋겠음	대전 문평동 화재 보도시 트라우마 상담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국가 트라우마 센터' 연락처 안내를 뉴스 자막으로 삽입함 <26. 3월 조치>	'26.2월
보도	<쓰레기 관련 보도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대책 발표가 있었는데 발표 후 보도가 되지 않은 것 같음. 발표됐다면 이후에 실효성이 있을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지 분석이 필요해 보임.	'지방으로 떠넘긴 쓰레기...“국가가 나서 책임져라” 등 정부의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환경단체의 입장 등 분석 보도함 <26. 3월 조치>	'26.2월
보도	<뉴스 자막 표기 관련> 요즘은 음소거를 하고 자막으로만 뉴스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많은데 자막만 보더라도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순화해서 사용하면 좋겠음.	'ASF' 관련 보도를 하면서 뉴스 자막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용어를 순화시켜 보도함 <26. 3월 조치>	'26.2월
교양	<시시각각 시인성 관련> 행정통합에 대해 시각적인 도구들을 이용해서 비교하거나 표를 활용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필요해 보임	사전영상 제작, 화면 분할, 출연자 멘트의 자막 처리 등을 통해 시각적 이미지를 강화시킴 <26. 3월 조치>	'26.2월
기타	<홈페이지 미리보기 관련> 홈페이지 TV프로그램에 '미리보기' 메뉴가 있는데 업데이트가 안돼서 잘 활용되지 않는 느낌을 받음. 활성화하지 않을 경우 정리가 필요해 보임	홈페이지 미리보기 업데이트 완료함 -오늘M, 건강플러스, 시시각각 <26. 3월 조치>	'26.2월
기타	<제작시스템 등 개편 계획> 2026년도에 촬영장비나 무대세트, 뉴스데스크 백월 등 개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함	3월에 뉴스 백월 교체작업을 위한 장비가 입고완료, 4월중에 교체작업 예정 <26. 3월 조치>	'26.2월
시청자 불만	<금강보호 캠페인 내용 수정> 맹꽂이는 수컷 한 마리가 '맹꽂맹꽂'우는 것이 아니라 '맹~'하고 우는 수컷 맹꽂이와 '꽂~'하고 우는 여러 수컷 맹꽂이들의 소리가 섞여서 '맹꽂맹꽂'으로 들리는 것임. 원고 수정이 필요함.	<방송 멘트 내용을 수정함> '맹꽂이 수컷이 맹꽂맹꽂 운다고 해서'를 '여러 마리의 수컷들이 맹꽂맹꽂 운다고 해서'로 수정함. <26. 3월 조치>	'26.3월
총 건수		7 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임기)
		해당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진 창구 운영 (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 게시판, 단체 채팅방 운영 등)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 공개 (<https://tjmbc.co.kr/MinutesOfTheMeeting>)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총 선임기간)
위원장	김 옥	배재대학교 총장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문화단체	25.5.1~27.4.30
부위원장	백강희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	언론학술단체	25.5.1~27.4.30
위원	김미화	대전YWCA가족센터 소장	대전YWCA	여성단체	24.5.1~26.4.30
위원	이성교	재능나눔 징검다리 회장	재능나눔 징검다리	청소년단체	24.5.1~26.4.30
위원	정성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기획총보팀장	민주노동대전지역본부	노동단체	24.5.1~26.4.30
위원	문선혜	전앤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25.5.1~27.4.30
위원	박은숙	지역문화정책연구소 대표	원도심문화예술인행동	문화단체	25.5.1~27.4.30
위원	이현욱	우송대 글로벌미디어학과 교수	한국영화교육학회	언론학술단체	25.5.1~27.4.30
위원	최승인	초록우산 충청권역총괄본부장	대전광역시가족센터	소외계층대변	25.5.1~27.4.30
위원	조원희	(주)자라지교시큐리티 대표이사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회장)	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	경제단체	25.5.1~27.4.30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안전공업 참가 관련 보도> 현장 상황과 화재 원인 분석, 유가족들의 입장까지 다각적인 시각에서 보도를 했는데 차후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재난 보도 준칙을 준수하면서 희생자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취재해 왔음. 앞으로도 화재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겨서 보도하겠습니다.	○		
보도	<선거 관련 보도> 이번 선거는 공약이 남발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단편적 이슈 중심의 보도가 아닌 유권자 중심으로 공약 구상에 대한 예산과 포트폴리오 등도 점검해 주길 바람	선거 보도시 유권자 중심으로 보도하기 위해 한번 더 자체적으로 환기시켜서 시청자한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선거 관련 보도를 준비하겠습니다.	○		
교양	<다큐 '합성, 이후의 시간' 관련> 한화 야구를 관전하는 스포츠로만 보지 않고 스포츠가 지역 관광과 시민들의 삶과 어떻게 함께하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음.	이번 다큐는 연출과 촬영을 직원들이 직접 진행하면서 공을 많이 들인 다큐멘터리로 스포츠가 도시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줬음. 향후 또 다른 스포츠 다큐도 기획할 예정임.	○		
교양	<후보자 토론회 관련> 후보자가 정책 역량이 있는지 검증하고 공약이 실천 가능성이 있는지, 이전의 공약을 이행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길 바람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유권자들이 궁금해 하는 공약 이행 여부, 공약 실천 가능성 등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음.	○		
교양	<유튜브 소개 코너 관련> 3월 26일 <오늘M>에서 유튜브 솜품영상을 소개해 주는 코너를 봤는데 영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궁금하고 흐름이 다소 지루하게 느껴졌음	해당 코너는 '대충봐도 꿀잼, 이거 봤슈? 코너로 선정기준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유튜브 중에서 시의성 있고 화제가 되는 이슈들을 소개하고 있음. 분량과 관련해 스피디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음.	○		
교양	<프로그램 게시판 활용 관련> 프로그램내 별도의 게시판을 만들어서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는 코너로 활용하면 시청자들을 통해서 지역소식을 전하고 리액션도 받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음	3월초에 홈페이지 프로그램 게시판을 정리하면서 참여도가 떨어지는 게시판을 삭제하고 중요한 게시판만 남겨놓은 상태임. 이 게시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 보겠음	○		
교양	<인생나잇 출연진 관련> 지역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을 소개해줘서 좋았음. 청주 글로벌 비전센터 내용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음. 대중에 알려지지 않은 문화예술부문에 활동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분들까지 소개해 줘서 좋았음	3월 한 달 동안 5회를 진행하면서 문화계 인사는 2회, 그 외 나머지 인사를 3회 출연시켰음. 현재는 청주와 공동으로 진행하지만 향후 전주 지역까지 확대해 더 폭 넓은 출연진을 소개할 예정임.	○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교양	<코드명 425 다큐 관련> 설명에 집중하는 편집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낸 다큐멘터리로 흥미롭게 봄. 대전이 과학의 도시로 부각되는 작품이었음. 제작비는 전체를 지원받는지 일부를 지원받는지 궁금함.	해당 다큐는 국방과학연구소 콘텐츠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으로 우리나라의 무기 체계 위상 홍보와 대국민 관심사를 유도하기 위해 기획된 것임. 제작비는 공모를 통해 전액을 지원 받음	○		
기타	<연중캠페인 관련> 중계차를 이동하면서 진행하는 연중캠페인을 재밌게 봤음. 어떤 의도로 기획된 캠페인 인지?	연중캠페인 '함께 가야 든든합니다' 라는 주제로 세대와 지역을 넘어서 MBC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같이 가자라는 취지로 기획된 것임.	○		
시청자 불만 (기타)	<금강보호 캠페인 내용 수정> 맹꽂이는 수컷 한 마리가 '맹꽂맹꽂'우는 것이 아니라 '맹~'하고 우는 수컷 맹꽂이와 '꽂~'하고 우는 여러 수컷 맹꽂이들의 소리가 섞여서 '맹꽂맹꽂'으로 들리는 것임. 원고 수정이 필요함.	<방송 멘트 내용을 수정함> '맹꽂이 수컷이 맹꽂맹꽂 운다고 해서'를 '여러 마리의 수컷들이 맹꽂맹꽂 운다고 해서' 로 수정함	○		

- 일시 : 2026년 3월 31일(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9명)
김욱 위원장, 백강희 부위원장, 이섬교 위원, 김미화 위원, 정성일 위원, 문선혜 위원, 박은숙 위원, 이현욱 위원, 최승인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7명)
진종재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이재우 경영국장, 김지훈 보도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김학철 기획제작부장,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이재우 경영국장

오늘 회의는 아홉 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은 총 10건입니다. 시청자 불만 3건, 홈페이지 이용 불만 2건, 내용 불만 1건, 기타 4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금부터 2월 정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전MBC 진종재 사장의 인사 말씀이 있습니다.

진종재 사장

완연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기업들이 그렇듯이 저희도 3월에 작년 25년도 기업 결산을 완료했습니다. 6월 지방자치 선거와 관련하여 내일 대전시장 민주당 후보 토론회를 시작으로 관련 방송들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선거 보거나 방송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의견들 부탁드립니다.

이재우 경영국장

이번에는 시청자 위원을 대표해서 김욱 위원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신 후 이어서 정기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욱 위원장

지난 회의에는 학교일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제 대신 진행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봄이 돼서 다들 바쁘실 텐데 위원님들 10분 중에 오늘 9분이 참석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문선혜 위원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문선혜 위원

이번 달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뉴스가 대전 문평동 공장 화재 참사일 텐데요. 취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특히 대전MBC가 충실한 보도를 설 새 없이 많이 해주셨는데 현장 상황이나 화재 원인 분석, 유가족들의 입장 등 그 내용도 다각적인 시각에서 보도를 해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성, 이후의 시간> 다큐를 봤는데요. 작년에도 스포츠 다큐를 제작해 주셔서 감탄하면서 봤는데 그에 못지않게 훌륭한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전 시민들이 일상에서 스포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 다큐멘터리였는데요. 트레일 러닝이나 야구 등 대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스포츠 문화를 다뤄 주셨고, 도쿄 유나이티드 사례를 가져와서 지역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보여준 것도 좋았습니다. 다큐멘터리 마지막에 '대전이 스포츠를 즐기기 좋은 도시다' 라는 멘트로 지역적인 자부심도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굉장히 감각적으로 잘 만든 다큐라고 생각합니다.

몇 번 언급했던 콘텐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유튜브 '이슈 탭'이라는 코너를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이슈 탭'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대전MBC가 다채롭고 생동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콘텐츠라고 생각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열풍인데 그와 관련해서 단종 관련 콘텐츠도 올리셨고, 벚꽃 개화시기를 다룬 콘텐츠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시의적절하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주셔서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강희 부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백강희 위원

저는 오랜만에 <오늘M>을 관심 있게 봤습니다. 3월 26일 방송이었는데 리포터 분들께서 방송 초반에 짙막하게 대전 소식이나 세종시와 관련된 내용의 홍보라든지 충남 경찰청 유튜브 등에서 솜품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번에 네다섯 개의 솜품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갑자기 선정 기준이 궁금했습니다. 방송사에서 자체적인 기준으로 선정하신건지 아니면 지역민들에게 가장 많이 공유된 기준으로 선정하신건지요. 주제가 다른 다양한 내용을 한꺼번에 네다섯 개 보여주다 보니 흐름이 다소 지루하게 느껴졌었거든요.

특별한 기준이 없다면 지난주 가장 많은 조회 수를 기록한 영상 두세 개 정도만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조금 빠른 흐름으로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은 게시판을

별로 만들어서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는 코너로 활용해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유튜브 버들이 대전 지역 맛집이나 가볼 만한 명소들을 찍어서 올리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시청자로 직접 참여해서 MBC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코너로 활용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청자들을 통해서 지역 소식도 전하고 시청자 리액션도 담은 그런 콘텐츠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 위원장

백강희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은숙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박은숙 위원

지난 달 대전에 사건 사고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목상동 화재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대전MBC가 다각도로 접근해서 다뤄주셔서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대전MBC 홈페이지에 희생자 추모 배너를 크게 띄워주셨더라고요. TJB나 KBS 홈페이지도 방문해 봤는데 TJB는 조그맣게 올렸고 KBS는 없더라고요. MBC가 지역사회 문제들에 대해 함께 마음을 나눈다는 것이 시청자 위원으로서 저에게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뉴스나 보도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는데요. 3월 29일, 30일자에 백제왕도 특별법이 국회 문체위를 통과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신라 문화와 더불어 백제 문화가 저평가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지역 방송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후속 보도 등 좀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방송들은 대부분 예술인들이나 예술 활동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요. 예술 활동들을 소개해 주는 정도에서 문화 예술 정책이라든지 문화적 소외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지역 방송이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에 특집 다큐멘터리 2개를 재미있게 봤는데요. <함성, 이후의 시간>에서는 한화 야구를 스포츠로만 보지 않고 스포츠가 관광이라든지 시민들의 삶에 어떻게 함께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까지 대전MBC가 시각을 확장해 준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조금 더 관심 있게 본 건 <코드명 425>입니다. 중동 전쟁 시기에 적절하게 올라온 다큐멘터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설명에 집중하는 편집 방식이었는데도 지루하지 않게 흥미롭게 봤습니다. 자막에도 나왔지만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수많은 연구원들의 활동들'을 이야기로 담담하게 풀어내고 읽어주는 그런 방식이 재미있었고요. 올해 대전MBC 연중 기획 캠페인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고, 대전이 과학의 도시라고도 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부각되는 다큐멘터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 위원장

박은숙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성일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정성일 위원

굉장히 무거운 3월의 마지막이 됐던 것 같은데요. 참사가 있기 전까지는 3월에는 산업재해 사망 소식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더 큰 소식이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참사 이틀 전에 대전MBC 뉴스에서 무인 소방 로봇 차량이 천안에 배치됐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 이후에 사고를 보니 더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대전MBC가 노동 환경 안전을 위해서 계속 보도에 힘써 오신 걸로 아는데 그 노력이 무색해질 만큼 너무 큰 사고여서 속상했습니다. 대전MBC가 계속 행정통합 이슈 보도로 많이 바쁘셨을 텐데 갑자기 그런 참사까지 발생해서 힘드시겠지만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속된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참사는 대전MBC 보도만 봐도 안전 관리 부실 문제가 초반부터 많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공장 전, 현직 직원들의 인터뷰를 방송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요. 사건 이후에 또 사건 전후로 해서 대표이사의 폭언들이 다른 보도들을 통해서 나왔던 게 있었습니다. 보면서 상황이 심각한 인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초반에 노동조합에서 안전 문제를 사측에 미리 얘기했는데 사측에서 해결하지 않았다는 인터뷰도 했었고, 그렇게 큰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대책도 수립되지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 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장례도 다 치러진 상황이고 노동조합도 사건 직후에 사측에 얘기했던 그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다양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고, 또 그에 대해 아무 의견이 안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게 장기적으로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MBC가 그동안 잘 해오고 있었는데요. 이번 달에도 서부발전 대표의 불송치 문제나 세종 제지 공장 사고도 다시 한 번 짚었고, 아리셀 대표 2심 구형 문제도 짚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는데 이 사건도 끝까지 계속 주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달에 에너지 문제와 쓰레기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날 유성구청 앞에서 진행된 송전선로 반대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반응들이 보도됐고, 유성구와 서구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나가는 과정과 시의회에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안을 통과한 부분까지 보도됐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가 실어졌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1절 직전에 ‘무명 속에 헌신한 독립군 부부 이야기’ 보도를 봤습니다. 이종희 지사에 대한 이야기로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군에 대한 보도가 좋았습니다. 이종희 지사는 대전 현충원 1묘역에 안장되어 있는데요. 대전현충원도 대전의 귀중한 자산인 만큼 우리 지역에서 독립유공자 분들을 방송으로 다룰 때는 대전현충원에 게시는지 살펴서 그 부분도 함께 방송해주면 지역 언론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종희 지사는 부부 독립운동가인데요. 부인인

송다녀 님의 행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전현충원에는 부부 독립운동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종희 지사만 계시더라고요. 가능하다면 인터뷰한 손녀 이로미 님을 통해 여사님에 대한 궁금증을 여쭙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1절 직전과 그 날까지 3.1절 관련 보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아는데 어쨌든 독립기념관의 긍정적인 소식이 간만에 나왔고 MBC의 노력으로 한 몫을 했기 때문에 3.1절 전에 문제가 해결되고 3.1절다운 3.1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8 민주 의거 관련 보도가 3건 있었습니다. 당일 보도가 있었고 그 전에 3.8 민주 의거 행사가 대전광역시청에서 있다는 것을 안내하는 보도가 두 차례 있었는데요. 보도 제목을 보면 ‘제66주년 3.8 민주이거 기념식, 오는 8일 대전에서 개최’ 그리고 ‘제66주년 3.8 민주이거 기념식 올해 대전에서 개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이상하지 않은가요?

예를 들어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광주에서 개최’ 이런 식으로 쓰지 않잖아요. 당연히 광주에서 하기 때문이죠. 5.18 민주화 운동은 광주에서 일어났던 운동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3.8 민주 의거는 대전에서 있었지만 잘 모르는 사람은 3.8 민주 의거는 전국적으로 있었는데 올해는 대전에서 개최하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다큐 <코드명 425>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제작 지원을 해서 제작한 건데 제작 지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MBC 예산 없이 전체 지원을 받는 건지 아니면 일정 부분을 지원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 위원장

정성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현욱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이현욱 위원

3월은 물가 문제, 전쟁 문제 그리고 대전에 큰 화재까지 발생해 보도국 직원 분들이 취재하시느라 바쁘고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3 지방선거 총청 민심은?’ 그리고 ‘달 올린 농어촌 기본 소득 성공하려면’ 이 두 편의 <시시각각>을 봤는데요. 지금 이 두 가지는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농어촌 지역들의 생태계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 분들이 아마 잘 모르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짚어서 방송에서 다뤄주신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내컷>에서 ‘제페토 할아버지의 꿈 마리오네트’ 김종구 작가님 편을 봤는데 이 분의 살아온 인생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드문데 그런 분을 잘 찾아서 방송으로 재미있게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 위원장

이현옥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섭교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이섭교 위원

3월에는 사건이 많은 달이라서 조금 착잡하긴 했었는데요. 대전MBC 입증계 라이브 이벤트로 커피 쿠폰을 주는 걸 보면서 이런 이벤트들이 참여를 조금 더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전MBC 유튜브에서 뉴스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걸 봤는데 시청자 입장에서 편하게 봤습니다. 문평동 화재나 다른 사건들도 추려서 모아보게 해 놓은 것들이 시간대별로 보기 편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인생내컷>을 가장 관심 있게 봤는데 3월 8일 방송된 '이주민을 위한 글로벌 비전센터 문사진 센터장'에 대한 얘기가 많이 와 닿았습니다. 청주에 러시아 타운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이주 배경을 가진 분들이 살고 계신다는 걸 알지 못했는데요. 아마 청주에 출입국 관 리소나 공항이 근처가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조건으로 더 많으신 건가 생각했습니다.

문사진 센터장의 아내분이 러시아분이기도 하지만 러시아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청소년들에게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해야 소통이 되고 소통이 돼야 어떤 역할이나 주어진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나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열심히 노력하는 장면을 보고 많이 와 닿았습니다.

이런 글로벌 비전 센터 청주에만 있는 건지 아니면 전국에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주 배경을 가진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도움을 주고 있을 텐데, 방송을 통해 이런 부분들을 수면위로 올림으로써 지원이나 행정적인 부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합성, 이후의 시간>은 스포츠를 통해 지역민이 하나 되고 융화될 수 있다는 아이টে으로 포커스를 정확하게 짚어서 구성했는데요. 한화이글스와 시티즌 두 개로 나눠서 스포츠가 일상생활에서 단순히 보는 관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즐길 수 있는 대전의 문화라고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서 즐겁게 봤습니다. 대전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프로그램으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 위원장

이섭교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승인 위원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최승인 위원

저는 <인생내컷> 3월 29일 방영된 '버려지던 감태를 고급 식재료로' 라는 서산 송원식품 송주

현 대표님의 내용을 봤는데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버려진 감태를 식재료로 탈바꿈시키고 이 부분을 국제화시키는 큰 역할을 하는 과정을 그려주셨습니다. 단순한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 기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까지 담았는데요. 아버님 때부터 이어져서 송주현 대표님께서 지속 가능하게 새로운 상품을 발굴하고 글로벌화 시키는 노력이 굉장히 좋았고, 경영 2세라는 부분이 놓여준 지역에서도 잘 비춰질 수 있게 정말 잘 그려주셨습니다.

감태라는 생소한 재료가 경쟁력이 있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었고, 마지막 클로징 멘트가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요. 작가님이 쓰셨을 것 같은데 '거친 겨울 갯벌에서 아버지가 한 올 한 올 건져 올린 것은 식재료가 아니라 홀로 견게 된 딸의 미래가 거칠고 모질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닦아놓은 보드라운 길' 이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솜사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감태가 맛은 없지만 넣었을 때 녹는 듯한 느낌으로 잘 표현하셔서 감동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가업을 잇고 있는 젊은 기업인들에 대해서 스토리를 입혀서 조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거 보도와 <시시각각> 프로그램에서 많이 다루시겠지만 올해만큼 선거 공약이 남발되는 해가 없을 거라고 다들 예측하는데요. 그 안에서 편중되지 않도록 보도의 양과 표현 방식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의 표본수 등 명확하게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보들이 내세우는 자극적인 표현이나 단편적 이슈 중심의 보도는 지양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러 후보 중에서 단체장이나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역분들은 홍보라든지 공약을 내세우는 데 우선권이냐 채널도 많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남부권 스포츠 파크를 2029년까지 완공한다고 했는데 담당 공무원은 패스트트랙을 이용해서 짓겠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29년도의 정책이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닌데 패스트트랙이 가동되는 상황인가? 또 천안에서는 돛구장을 짓겠다는 공약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공약에 집중할 게 아니고 이 구상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과 포트폴리오가 나와 있는지를 점검해 주시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앙 뉴스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울산 울주군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30대 가장이 아이 4명을 살해하고 같이 동반 자살했던 건데요. 요즘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두 달 사이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유사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생활고로 폭력이나 살인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동 복지 현장에서는 가족 동반 자살로 표현하지 않고 명백한 가족 살인이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고, 아이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이용하는 극단적인 선택이라서 굉장히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살해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인식 개선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보도 기사에서 ‘극단적 선택’, ‘동반 자살’이라고 표현돼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심각한 아동 문제로 접근해서 가족을 보호해야 될 사회 안전망으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별로 남겨진 아동들이나, 자살률이 많아지면서 자살로 파생되는 가족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자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관련 서비스나 정책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신청제나 허가제나 하면서 최근에 말들이 많듯이 당연하게 주어질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취약계층들이 많습니다.

일례로 평범한 시민들이 ‘내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해’라고 하면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통상 4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40개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통합지원센터라는 것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주 아동학대 사건 등 안 좋은 일들은 앞에 지역명이 붙습니다. 우리 지역만 아니면 된다는 인식도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6월에 선거가 있을 것이고 6월이 지나면 방향이 이어지고 바로 명절이기 때문에 취약계층들에게는 더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정보성 있는 관련 보도와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방송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 위원장

최승인 위원님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화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김미화 위원

3월 한 달도 대전MBC 뉴스와 프로그램을 보면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었습니다. 대전 안전 공업 화재 참사 합동 분향소에 직접 참석했는데요. 사고 책임과 안전 관리 부실 문제들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화재경보기도 작동이 잘 안 됐고, 나트륨을 대량으로 쏟아내서 화재가 날까봐 스프링클러도 꺼놓고, 불법 증축과 이전에 화재가 계속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을 계속 짚어가면서 공영적인 감시 역할을 너무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종 제지 공장 노동자 사망 사건도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주시고, 특히 방송들을 보면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역할들을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를 저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불법 증축을 했는데도 대덕구에서 10년 동안 잘 몰랐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의 역할들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계속 공문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내컷>을 한 달에 두 개씩은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부분들이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예술 방면에 있는 분들을 조명하고, 그분들이 얼마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는지를 다뤄주시기 때문에 가치가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서산에서 감태 제품을 판매

하고 여성 사업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송주현 대표님에 대해 소개한 부분을 봤는데요. 국외에 소개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역 특산물을 알리려는 역할들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김이 케이푸드도 알려져 있는데 감태도 제2의 케이푸드도 알려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경쟁력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의 그런 산업을 더 발전시켜서 지역 경제를 확산시키는데 일조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만 돌아가신 아버지 산소에 성묘하는 부분이 너무 길게 다뤄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분이 직접 요리를 해서 엄마와 감태가 들어간 요리를 먹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해외 사람들도 감태라는 제품을 처음 알게 됐다는 인터뷰를 봤습니다. 이분은 감태 요리를 못한다고 했지만 몇 가지 소개한 음식은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시각각>에서 ‘6.3 지방선거 충청 민심은’ 부분을 봤는데요. 유권자 중심의 보도를 더 많이 하면서 후보자가 진짜 정책 역량이 있는지 검증하고,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이전의 공약을 이행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신다면 선거를 앞두고 더 나은 지역의 일꾼들을 뽑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옥 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감사합니다. 여덟 분 모두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6.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와서 선거 관련 보도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역에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기 때문에 선거 관련 인터뷰시 골고루 다양하게 출연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이재우 경영국장

시청자위원님들이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국장님들께서 부문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보도국장

안전공업 참사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 주셨는데요. 당일 화재가 났다는 첫 소식을 듣고 사건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는데 저녁 때 되니까 14명이 연락이 두절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튿날 새벽에 시신 1구가 발견되고, 새벽 3시에는 10구가 발견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서 당혹스럽고 놀랐습니다. 너무 큰 사고여서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아팠고 취재 기자들도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망자가 14명으로 나오면서 저희가 기준을 맞춘 건 참사라고 봤습니다. 참사로 부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봤더니 오송 참사가 14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참사라고 표현을 했고, 사망자가 아니라 희생자라고 기사에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도를 하면서 좀 더 신경을 썼던 부분은 재난 보도 준칙입니다. 뉴스를 보시는 분들도 트라우마에 휩싸일 수 있어

서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 연락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라는 문구도 처음으로 뉴스 자막으로 삽입했고 보도도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언론사별로 속보 경쟁이 벌어지는 분위기였지만 저희는 희생자를 애도하는 분위기로 끝까지 톤 다운해서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겨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성, 이후의 시간>에 대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스데스크 앵커를 하고 있는 박선진 기자가 직접 제작을 했고요. 영상은 장명공 사원과 장우창 부장이 같이 촬영을 했습니다. 연출과 촬영을 저희가 직접 진행해서 공을 많이 들였던 다뤘었습니다. 단순하게 동계 훈련에 대한 요약과 전력 분석이 아니라 스포츠가 도시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짚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올 가을에도 또 다른 스포츠 다큐도 기획해 볼 예정입니다. 말씀 잘 전달해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관련인데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민주당 요청으로 대전시장, 충남지사 예비 후보들 경선 토론회를 내일과 모레 이들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선거 체제로 들어갑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유권자들이 궁금해 하는 공약 이행 여부, 그리고 공약이 진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 쉽지는 않지만 최대한 취재를 꼼꼼히 해서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된 선거 공약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거 보도와 관련해서도 유권자 중심의 보도를 위해 한번 더 자체적으로 환기시켜서 시청자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선거 관련 보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기획제작부장

백강희 부위원장께서 <오늘M> 말씀해 주셨는데요. 올해부터 PD가 바뀌면서 3월 1일자로 코너를 전면 교체했습니다. 기존에 하던 코너중에서 '문화 나들이' 코너만 남겨두고 나머지 코너는 다 폐지했습니다. 3월 첫 주부터 수요일은 '오늘도 갑니다' 코너가 생겼는데 지역에 계신 분들을 찾아가서 그 분들과 같이 동행하며 사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코너입니다. 한주희 아나운서가 같이 출연하는 코너입니다.

그 다음 수요일 이영준 리포터의 '톡파민' 코너를 없애고 이영준 리포터의 재미있는 캐릭터를 살려서 맘을 흘리면서 다녀야지 좀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콘셉트로 '맘나는 여행'이라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목요일 '문화 나들이' 코너는 그대로 가고요. 영상을 아주 예쁘게 잘 찍는 외주 촬영 감독이 있는데 '오늘 쉽터'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지역의 예쁜 그림들을 담아 기록의 의미도 가지면서 지역의 문화유산들이나 자연유산들을 보존하는 그런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코너 이름은 '대충봐도 꿀잼, 이거봤슈?'라는 코너인데 3월 셋째 주부터 새롭게 런칭해서 박찬규 리포터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화제가 되는 영상들을 추려서 VJ들이 영상을 소개하듯 그렇게 진행하는 코너입니다. 선정 기준은 화제가 되는 이슈들을 골라서 방송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지자체와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유튜브 클립들입니다.

유튜브 영상들도 저작권 문제들이 다 걸려 있다 보니 저희가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은 최근에 충주맨이 지자체 홍보 유튜브로 뜨면서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채널을 홍보하려는 욕구들도 있고 저희는 영상 사용 허락을 쉽게 받을 수 있어서 대전 세종, 충남에 있는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공공기관들을 훑어보면서 매주 화제가 되는 클립들을 골라서 소개해 드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3월 첫 회에 방송했을 때는 당시 화제가 됐던 '왕과 사는 남자'와 관련해 각 지자체에서 만들었던 클립들이나 최근 화제가 된 봄동비빔밥이 나오는 클립들을 소개해 드렸고, 지난주에는 경찰과 관련된 것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선정 기준은 시의성이 있는 이슈들을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재미있게 소개하는 것들을 골라서 시청자들에게 보여드리는 콘셉트입니다. 선정이 되면 지자체나 공공기관과 접촉해서 영상 사용 허락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직은 자리를 잡는 기간이어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듣고 수정 보완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패턴이라서 영상 소개하면서 멘트를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데 분량이 7~8분 되다보니까 살짝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량에 대해서 제작PD와 협의해서 스피디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만들어서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도 고민을 한번 해볼 텐데요. 홈페이지에 프로그램마다 시청자 참여 게시판들이 많이 있는데 참여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난달에도 시청자위원회에서 비슷한 지적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쓰지 않는 게시판들을 최근에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것들만 남겨놔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내컷>관련해서는 이번 달에 5편이 방송됐는데 대전이 제작한 것이 3편, 충북에서 제작한 것이 2편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 <인생내컷> 주인공들이 문화예술계 쪽이 많다 보니 출연자들을 다양하게 섭외해서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달에 첫 번째는 장애인 기타리스트 김지희 님, 두 번째는 글로벌비전센터 문사진 센터장, 세 번째는 양촌 양조장 이동중 대표, 네 번째는 제페토 할아버지 김종구 작가, 다섯 번째는 감태로 식품을 만드는 송주현 대표까지 총 5분이 나왔는데요. 다섯 분 중에 두 분이 문화계쪽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었고 나머지 분들은 시민활동가, 양조장 장인, 기업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에서 알려지지 않고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기업 활동하시는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예정이고요. 현재 충북과 공동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전주MBC에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조만간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섭외해서 더 폭넓은 출연진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코드명 425>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콘텐츠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된 작품입니다. 후문에 의하면 서울 유명 지상파 방송사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공모를 통해서 기획돼서 시작되긴 했는데 마침 최근 중동 전쟁과 맞물려서 관심을 끌어 모은 것 같습니다. 425는 안보를 전제로 한 방어 차원에서의 시스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심들을 가지고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6월 8일에 본사 MBC를 통해서 전국 방송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무기 체계 위상 홍보와 대국민 관심사를 유도하기 위한 기획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개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작비는 전액 공모를 통해 지원 받았습니니다.

정수진 인프라국장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는데 뉴스센터가 LED월로 바뀌고 세트도 바뀝니다. 4월 7일부터 공사가 시작되고 공사 기간 동안에는 투 앵커가 아닌 원 앵커로 크로마키를 활용해서 뉴스를 할 예정입니다. 기간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가 끝나면 선거 방송이나 토론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성일 위원

이번에 연중 캠페인을 봤는데요. 중계차를 이동하면서 진행했는데 재밌게 봤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해서 주변을 돌면서 전경을 보여주었는데요. 어떤 의도였는지 궁금합니다.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함께 가야 든든합니다’ 캠페인인데요. 마침 행정 통합 이슈가 나와서 의도한 건 아니지만 ‘함께 가야 된다’라는 주제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내용은 보시는 대로 세대와 지역을 넘어서 함께 MBC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가자라는 취지로 기획이 됐고 제작을 했습니다. 올해 에피소드를 달리해서 네 번 정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재우 경영국장

3.8 민주외거 관련해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보도국장님이 직접 다큐멘터리도 제작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잘 반영되리라 믿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요. 이어서 사장님께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옥 위원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음 달에 일부 위원님들 교체가 있는 것 같은데 일정이 어떻게 되고 다른 분들은 연임이 되는 건지요?

이재우 경영국장

세 분의 위원님들이 4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임기가 종료되고요. 5월부터는 세 분의 새로운 위원님들이 신임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임기는 1년인데 통상 1회에 한해서 자동 연임되기 때문에 나머지 일곱 분은 내년까지 2년을 하시게 됩니다.

진종재 사장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유념해서 받아들일 것이고요. 관심을 뒤야 될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뜻도 반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전략을 짜는 과정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선거 방송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의견도 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재우 경영국장

이상으로 3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